

##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

안 계 한

김 민 희<sup>†</sup>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이 사회적 관심으로 커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청년세대인 20-30대 313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 인식은 통제감,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무망감은 공정성 인식, 통제감, 자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를 통제감이 매개하였다. 셋째,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를 자존감이 조절하였다. 높은 자존감 집단은 공정성 인식에 따른 무망감의 변화가 적은 반면 낮은 자존감 집단은 공정성의 인식에 따른 무망감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성 인식이 낮을 때 높은 자존감이 무망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세대의 무망감을 낮추어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정성 인식, 무망감, 통제감, 자존감, 청년세대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재분석,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137-865) 서울 서초구 효령로 366, E-mail : pseudo@kcg.ac.kr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들은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자신의 삶을 계급화하는데, 이는 미래가 자신의 노력이나 역량에 달려 있지 않고 부모의 능력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패배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하며,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부조리하고 비도덕적’이고, ‘공공성이 실종’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명순, 2016).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달리고 있고, 특히 20대의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 3.2%보다도 3배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김태은, 2014). 취업을 한 청년들조차 소득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하는데 많은 청년세대들이 비정규직이나 낮은 임금을 받는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장효진, 2017).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청년들은 스스로를 삼포 세대, n포 세대라고 부른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 결혼, 출산, 더 나아가 연애나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희망 없음 즉 무망감(hopelessness)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이 결여된 부정적인 믿음으로, 미래에 바라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혹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라는 개인의 기대’(Beck, 1967)이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White, 1989)이다. 무망감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데 예를 들어, 무망감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성훈, 2012), 자살 시도 및 자

살완결과 같은 자살 관련 행위를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김병석, 김현순, 2008; Lynch, Cheavens, Morse, & Rosenthal, 2004; Smith, Alloy, & Abramson, 2006).

한국 청년세대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무망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무망감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강상경, 권태연, 2008),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청년세대들의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에서 심층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제감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공정한 세상 이론

공정성 인식, 혹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s in a just world; 이하 BJW)은 자신이나 타인이 사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것으로, 지난 50년간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심리적 변인이다(Dalbert & Stoeber 2006; Lucas, 2009).

공정한 세상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한 세계에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Bai, Liu, Shang, Zhong, & Zhang, 2016; Dalbert, 1999; Furnham, 2003).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개인은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거나 장기적 목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동기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Bai, Liu, & Kou, 2014; Faccenda & Pantaleon, 2011; Schindler & Reinhard, 2015). 특히 공정성 인식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적 보호요인이 된다(Dzuka & Dalbert, 2002; Otto, Boos, Dalbert, Schöps, & Hoyer, 2006).

공정성 인식(BJW)은 인간의 기본적 동기 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이다(Mendonça, Gouveia-Pereira, & Miranda, 2016). 즉 유아기의 학습 경험, 강화 계획, 부모 및 또래 모델링의 결과로 개인들의 공정성 인식 발달에서 차이가 발생한다(Hafer & Sutton, 2016).

공정성 인식이 높은 것은 삶의 적응에서 이점을 가지는데(Lerner, 2003), 공정성 인식이 높은 개인들은 일상생활의 부정적 사건들을 더 잘 다룰 수 있고, 부정적 감정을 덜 경험하고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Oarga, Stavrova, & Fetchenhauer, 2015; Schaafsma, 2013). 반면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낮은 공정성 인식은 우울과 무망감을 야기한다(Adams, 1965). 다수의 연구들에서 공정성 인식이 미래에 대한 기대나 무망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높은 공정성 인식은 대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생각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Sutton, Stoeber, & Kamble, 2017), 공정성 인식이 높으면 무망감이 낮아지고(Bartholomaeus & Strelan, 2016), 미래에 대한 희망이 증가하는(Correia, Batista, & Lima, 2009) 것으로 나타났다. Li(2020)의 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의 수준이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감정, 미래에 대한 계획 등 미래 전망을 예측하였다.

####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 통제감의 매개효과

이처럼 선행연구들이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을 예측한다는 것을 검증했지만, 그것의 심리적 심층 기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

는 공정한 세상 이론에 근거하여 통제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제감이란 주어진 결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정도가 자신의 내적인 요소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된다고 믿는 태도이다(Rotter, 1975). 통제감은 개인의 사고 및 행동을 좌우하고,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주관적 안녕감, 정신 건강, 학업 성취 등을 예측한다(Seeman & Seeman, 1983). 특히 낮은 통제감은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행동, 더 나아가 학습된 무기력의 발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정, 김진숙, 2008; Keeton, Perry-Jenkins, & Sayer, 2008).

공정한 세상 이론은 복잡하고 종종 무작위로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관점이다(Lerner, 1980). 이 이론에서는 공정성 인식이 통제감 발달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는데, Feinberg, Powell과 Miller(1982)는 공정성 인식이 통제감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였다. 공정성 인식이 높으면 세상이 예측가능하다는 신념이 생기는데(Callan, Kay, Davidenko, & Ellard, 2009; Ramos, Correia, & Alves, 2014), 이것은 사람들에게 통제감을 제공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공정성 인식이 높은 사람은 삶의 전개가 자신의 통제 안에 있다고 믿고, 노력은 수확과 비례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공정성 인식으로 인해 통제감이 높아지면, 이것은 개인의 환경 적응을 돕는다(Testé & Perrin, 2013). 특히 통제감은 무망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Clements, Sabourin, & Spiby, 2004),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의 과거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긍정적인 사건을 경험

할 것으로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Lipkus & Siegler, 1993). Ucar 등(2019)의 연구에서도 통제감은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car, Hasta, & Malatyali, 2019).

공정한 세상 이론과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통제감은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층 변인일 수 있다. 즉 청년세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이 사회가 정당하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통제감이 약화되고 이것이 무망감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 : 자존감의 조절효과

한편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을 예측하지만,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무망감을 경험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것은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들 중 하나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긍정적 평가로(Gecas, 1972; Rosenberg, 1965; Watson, Suls, & Haig, 2002),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다(김경아, 2012).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하고(Block, Gjerde, & Block, 1991; Roberts, Gotlib, & Kassel, 1996; Whisman & Kwon, 1993), 심리적인 고통과 절망감을 경험하며(Orth, Robins, & Roberts, 2008), 자살

사고를 더 많이 한다(Wild, Fisher, & Lombard, 2004). 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더 자주 느끼고(Neyer & Asendorpf, 2001),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DuBois & Flay, 2004; Pyszczynski, Greenberg, Solomon, Arndt, & Schimel,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탄력적인 요인으로, 부정적 특성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우울을 포함한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자존감에 따라 달라졌으며(Dumont & Provost, 1999),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청소년들의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다(Sandin, Chorot, Santet, Vailet, & Joiner, 1998).

특히 우울의 자존감 이론(Brown & Harris, 1978)에서는 낮은 자존감은 우울을 유발하는 취약 요인으로, 낮은 자존감이 스트레스가 되는 부정적 사건과 상호작용할 때 무망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Metalsky, Joiner, Hardin과 Abramson(1993)은 우울의 무망감-자존감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우울에 취약한 귀인 양식이 부정적인 사건 발생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고 높은 자존감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자존감이 유전적 취약성과 부정적인 사건 발생 이후 무망감의 발달 사이의 관계를 끊는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이다(Abela, 2002). 우울의 무망감-자존감 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낮은 공정성 인식이 청년세대의 무망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자존감이 경감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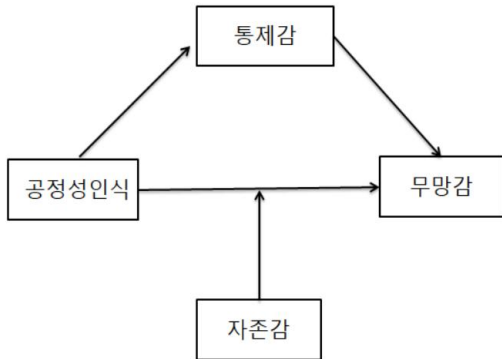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이르는 경로를 통제감이 매개하고, 자존감이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동수, 김옥환, 이상현, 정태연, 2011; 안혜정, 이민주, 정태연, 2013). 현재 청년세대들이 느끼는 불공정성과 무망감, 그리고 이것이 야기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개인의 주관적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큰 사회적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함으로써, 이들이 청년기 발달과제를 잘 해결하도록 돕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무망감을 다루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인 20~30대로 참가자 연령을 제한하였다(손정민, 김현수, 이은희, 2015). 자료수집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였는데, 오프라인은 연구자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한 편의표집 방법을, 온라인은 무선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오프라인 71명, 온라인 252명, 총 313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9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읽었다. 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요구특성에 의해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설명문에서는 연구 목적을 ‘청년세대의 심리적 특성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소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16명(39.5%), 여성 178명(60.5%)이고, 연령은 20대 150명(50.5%), 30대 144명(49.5%)으로, 연령 평균은 29.51세였으며 표준편차는 5.81세였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고졸의 순이었으며, 직업은 정규직과 학생이 각각 32.4%, 31.3%로 가장 많았다.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와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N=294)

		빈도	%
성별	남자	116	39.5
	여자	178	60.5
연령	20대	150	50.5
	30대	144	49.5
교육	고졸	31	10.5
	전문대졸	12	4.1
	대졸	175	59.6
	석사	68	23.1
	박사이상	8	2.7
직업	정규직	95	32.4
	계약직	33	11.2
	자영업	11	3.7
	아르바이트	17	5.8
	학생	92	31.3
	기타	46	15.6
건강 상태	매우나쁘다	2	0.7
	나쁜편이다	32	10.9
	보통이다	106	36
	좋은편이다	129	43.9
	매우좋다	25	8.5
경제 상태	매우나쁘다	11	3.7
	나쁜편이다	52	17.7
	보통이다	130	44.2
	좋은편이다	87	29.6
	매우좋다	14	4.8

pearson 상관분석, ANOVA를 실시하여 변인들의 특성과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통제감이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은 가상적 무선 표본을 만들어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Sobel test보다 효과적인 검증법으로 알려져 있다(Fritz & MacKinnon, 2007). 셋째,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및 조절 변인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절효과 모형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 공정성 인식척도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ucas, Alexander, Firestone과 Lebreton (2007)이 개발하고, Lucas, Zhdanova와 Alexander (2011)가 수정했으며,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2017)가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에서 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사는 세상과 그리고 타인이 보는 세상의 관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함을 의미한다. 예 문항으로,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Lucas, Zhdanova, Wendorf, Alexander(2013)의 연구에서 공정성 인식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90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 무망감척도

무망감을 측정하기 위해 Beck, Weissman, Lester와 Trexler(1974)의 무망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HS)를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와 김중술(1990)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의미, 실패에 관한 지각, 의기소침, 비참함, 불행, 만족감, 행복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요인 척도이다. 이 척도는 무망을 측정하는 11개 문항(예: ‘내 생활이 더 좋아지도록 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과 희망감(예: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을 측정하는 9개의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아니오’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는 0점에서 20점까지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무망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척도 개발 당시 문항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서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9 였다.

### 통제감척도

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 Rotter(1966)가 개발한 내적 통제 척도(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를 차채호, 공정자와 김철수(1973)가 번안 수정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내외통제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허구문항을 제외한 15개의 내외통제 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내적인 문항의 경우에 1점 그 나머지는 0점을 부여하여 평정을 실시하였다. 점수는 0점에서 1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예 문

항으로는 “일어날 일은 기어코 일어나고야 만다”, “노력하지 않고 운명만 믿을 때에는 결과가 아주 좋지 않다” 이 있다. 문항 척도 개발 당시 문항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0이었다.

### 자존감척도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척도를 전병제(1974)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1점=매우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 예 문항은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등이다.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척도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 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공정성 인식은 무망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 $r=-.406, p<.01$ )을 보인 반면, 통제감( $r=.292, p<.01$ ), 자존감( $r=.408, p<.01$ )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무망감은 통제감( $r=-.289, p<.01$ ), 자존감( $r=-.634, p<.01$ )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통제감의 경우 자존감( $r=.263,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1	2	3	4
1. 공정성인식	-			
2. 무망감	-.406**	-		
3. 통제감	.292**	-.289**	-	
4. 자존감	.408**	-.634**	.263**	-
평균	4.102	5.139	8.996	3.656
표준편차	0.970	3.332	2.634	0.607

\* $p < .05$ , \*\* $p < .01$ , \*\*\* $p < .001$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분석에 앞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본 연구의 무망감, 통제감, 공정성 인식,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주변수인 성별과 직업은 집단 간 차이검증, 연속변수인 연령, 교육년수,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경제상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건강상태의 경우 공정성 인식, 무망감, 통제감, 자존감 모두 유의한 상관이 보였고 경제상태는 공정성 인식, 무망감,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에, Process Macro 검증 시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를 공변인

으로 투입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공정성 인식이 통제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eta = .053, p < .001$ ), 2단계에서는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을 유의하게( $\beta = -.070, p < .001$ ), 3단계에서는 통제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 = -.060, p < .001$ ), 그 효과는 2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 즉,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과의 관계를 통제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통제감의 매개(간접)효과가 통계적

표 3. 통제감의 매개효과분석

단계	경로	$\beta$	$t$	$\Delta R^2$
1	공정성인식 → 통제감	.053	5.215	.085***
2	공정성인식 → 무망감	-.070	-7.601	.080***
3	통제감 → 무망감	-.177	-3.388	.032***
	공정성인식 → 무망감	-.060	-6.41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통제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에 대한 Bootstrapping 분석

	Effect	SE	95% CI	
			LL	UL
독립변인: 공정성인식				
종속변인: 무망감	-.007	.003	-.016	-.001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5,000회 실시함.

CI=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LL=lowerlimit(하한계), UL=upper limit(상한계)

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한-상한값이 각각 -.016과 -.001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공정성 인식이 통제감을 강화시키고, 높은 통제감이 무망감을 감소시키는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reacher & Hayes, 2004). 통제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공정성 인식에서 무망감으로 향하는 총 효과는 -.087이었다. 이 중 공정성 인식에서 무망감으로 향하는 직접효과는 -.075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011로 95% 신뢰구간은 -.022에서-.003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모두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분해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 분석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무망감을 종속변수, 공정성 인식을 예측변수, 자존감을 조절변수로 하여 Aiken, West와 Reno(1991)가 제안한 방식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편차점수를 만드는 중심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

표 5.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검증

	Effect	SE	95% CI	
			LL	UL
간접효과 (공정성인식→통제감→무망감)	-.011	.004	-.022	-.003
직접효과 (공정성인식→무망감)	-.075	.013	-.102	-.049
총 효과	-.087	.013	-.113	-.061

\*p<.05, \*\*p<.01, \*\*\*p<.001

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김수영, 2016)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940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인식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16.5%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57.778, p<.001$ ), 공정성 인식의 주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406, t=-7.601, p<.001$ ). 이는 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무망감 수준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설명 증가량은 26.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33.575, p<.001$ ). 자존감의 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beta=-.561, t=-11.557, p<.001$ ) 이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무망감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단계 모형의 설명 증가량은 3.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 19,257, p<.001$ ), 공정성 인식과 자존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192, t=4.388, p<.001$ ). 낮은 자존감을 가진 집단의 경우에는 공정성 인식이 낮으면 공정성 인식이 높은 경우보다 무망감 수준이 매우 높지만, 높은 자존감 집단에서는 공정성 수준에 따른 무망감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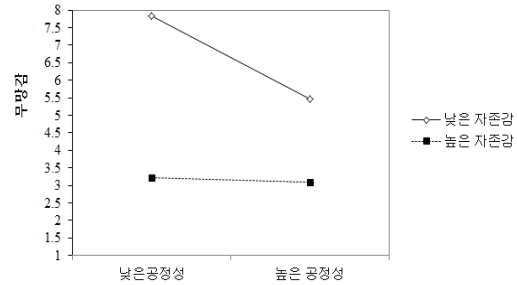


그림 2.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

이는 높은 자존감이 공정성 인식이 낮은 경우에 무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 결과는 표 6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를 통제감이 매개하고 자존감이 조절한다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Hayes, & Scharkow 2013)의 Model 5를 활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접 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이현웅, 2014), 정규분

표 6. 공정성인식과 무망감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

		B	S.E	$\beta$	t	VIF	R <sup>2</sup>	$\Delta R^2$	F
1단계	공정성인식	-.087	.011	-.406***	-7.601	1.000	.165	.165	57.778***
2단계	공정성인식	-.038	.010	-.177***	-3.645	1.200	.428	.263	133.575***
	자존감	-.308	.027	-.561***	-11.557	1.200			
3단계	공정성인식	-.040	.010	-.188***	-3.984	1.204	.463	.036	19.257***
	자존감	-.288	.026	-.524***	-10.934	1.240			
	공정성인식x자존감	.006	.001	.192***	4.388	1.034			

종속변수 무망감 \*p<.05, \*\*p<.01, \*\*\*p<.001

표 7. 최종 모형검증 결과

	coeff	se	t	p	95% CI	
					LL	UL
상수	11.074	1.101	10.052	.000	8.906	13.242
통제감	-.167	.063	-2.654	.008	-.291	-.043
공정성인식	-.032	.012	-2.578	.010	-.058	-.007
자존감	.028	.004	6.492	.000	.019	.036
공정성인식 x 자존감	-.000	.000	-4.882	.000	-.000	-.000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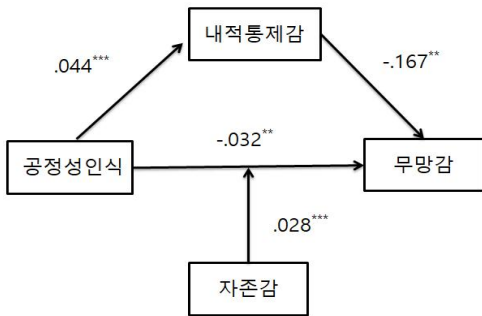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포를 가정한 Sobel Test의 단점을 해결한 Bootstrapping 방법이다(허원무, 2013). 이 때 경제상태와 건강상태를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7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를 통제감이 매개하고 자존감이 조절한다는 연구모형을 검증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 인식에서 무망감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공정성 인식이 낮을수록 무망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것은 높은 공정성 인식은 낮은 무망감과 관련되며(Bartholomaeus & Strelan, 2016), 공정성 인식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예측한다(Li, 2020)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둘째,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를 통제감이 매개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Ucar et al., 2020)와 일치한다. 공정성 인식이 높은 사람 즉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다가올 결과를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한효정, 2012). 따라서 이들은 인생을 자신의 행동 결과로 바라보기 때문에 통제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Dalbert, 2001). 반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불행이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White, 1989). 통제감이 높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만(Cao & Su, 2007;

Chou & Chi, 2001), 통제감이 낮으면 자기 삶과 주변 상황에 대해 통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우울(최윤희, 2003), 무망감, 무기력감을 경험한다(김은정, 김진숙, 2008).

셋째, 자존감이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자존감은 공정성 인식에 따라 무망감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낮은 자존감은 공정성의 인식에 따라 무망감의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정성이 부재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높은 자존감이 무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자존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최미래, 이인혜, 2003; Eisenbarth, 2012), 공정성 인식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Khera, Harvey, & Callan, 2014; Lucas, Alexander, Firestone & Lebreton, 2008). 이러한 결과들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낮은 공정성 인식이 우울에 이르는 경로를 자존감이 조절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이나 고통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잘 견디고,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박준성, 안혜정, 정태연, 2013). 또한 이들은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 특성(McFarlin, Baumeister, & Blascovich, 1984)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Pyszczynski et al., 2004)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며 사회 발전

과 성장의 원천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를 살펴본 첫 번째 연구로서, 몇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기존의 공정성 연구들이 회사 조직 내 분배와 절차에 대해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을 사회적 현상에 확대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현재 청년세대들은 사회가 불공정하고 평등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유명순, 2016), 이러한 불평등성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우울 혹은 분노가 심해지고 있다(이상영, 정진욱, 황도경, 손창균, 윤시문, 채수미, 김효진, 2015)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공정한 세상 이론과 우울의 무망감-자존감 이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즉 세상이 공정 혹은 불공정하다는 개인의 인식은 상당 부분 사회의 구조적, 환경적 문제에 원인이 있다.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무망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통제감이나 자존감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무망감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치료의 개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담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높은 무망감은 우울이나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Beck, 1967)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공정성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김은하 등(2017)은 공정성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더 객관적

이고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둘째, 공정성 인식이 낮은 사람들의 무망감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즉 통제감을 갖도록 하는 상담 전략이 필요하다. 자신의 미래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현실주의 상담이나 실존주의 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낮은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내담자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던 자기주장 훈련 혹은 핵심정서 탐색(권성혜, 이수연, 2015)을 상담 장면에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세대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개입은 청년세대들의 무망감을 예방 혹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겠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대졸 이상이 대다수였고 직업은 정규직이 30%였으며, 건강 상태와 경제 상태도 ‘좋은 편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평균 40% 정도로 비교적 안정된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통제감과 무망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육년수, 나이, 직업에 따른 공정성 인식, 통제감, 무망감, 자존감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유의한 상관을 보인 지각된 경제상태와 건강상태를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년세대에게 일반화하는 데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 및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정한 세상 이론을 근거로, 공정성 인식이 개인의 통제감을 매개하여 무망감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지만, 통제감이 개인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 공정성 인식은 영성과 안녕감(Schuermans-Stekhoven, 2020), 인생 역경과 정신증(Wickham & Bentall, 2016), 스트레스와 화병(김은하, 김혜림, 2015)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통제감과 무망감의 관계에서 공정성 인식이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결과는 횡단자료를 상관에 기초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변인들 간의 선후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자료의 분석을 통해 공정성 인식과 통제감의 관계를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무망감-자존감 이론을 근거로 자존감이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자존감은 무망감뿐 아니라 공정성 인식과도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자존감이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을 매개하거나 자존감과 무망감의 관계를 공정성 인식이 매개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Lench와 Chang(2007)의 주장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셋째, 공정성 인식에는 개인적 믿음(BJW-self)과 일반적 믿음(BJW-others)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개인적 믿음은 세상이 자신에게 정

당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일반적 믿음은 세상이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김은하, 김수용, 2017).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 공정성 인식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 믿음은 개인의 삶 만족이나 대인관계를, 일반적 믿음은 사회적 태도를 좀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cas, et al., 2007). 비록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공정성 인식이 청년세대들의 무망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적 믿음, 일반적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적응 변인들을 포함시켜 연구를 확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믿음, 일반적 믿음과 적응의 관계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변인들이 다르다면 적응 문제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개입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인식은 무망감이나 우울뿐 아니라 분노, 슬픔, 불안 등 다양한 정서반응을 유발한다(Begue & Bastounis, 2003; Conway & Briner, 2002; Cortina & Magley, 2003). 본 연구는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무망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으로 인한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무망감이 실제로 청년세대들의 미래계획의 포기나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공정성 인식과 무망감이 연애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나 같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예측하는지를 확인해보는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청년문제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상경, 권태연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 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사회사업*, 30, 332-355.
- 권성혜, 이수연 (2005).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한의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0, 97-112.
- 김경아 (2012). 심리적 위협 상황에서 자존감 안정성 향상과 조절 초점의 부합에 따른 개인의 과제 수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수, 김옥환, 이상현, 정태연 (2011). 한국인의 소득양극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유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4), 461-483.
- 김병석, 김현순 (2008). 자살 생각과 그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01-219.
- 김성훈 (2012). 군 장병 자살 의도와 군 복무 적응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한국군사학논집*, 68(3), 129-152.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은정, 김진숙 (2008). 상담 일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우울 수준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9(4), 1505-1520.
-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 김은하, 김혜림 (2015). 기혼여성의 생활 스트레스와 화병 간의 관계: 내외통제성을 통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매개된 조절 효과. *상담학연구*, 16(5), 39-53.
- 김은하, 김수용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1-22.
- 김태은 (2014). 청년 실업과 ICT: ITU 논의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정책*, 26(10), 1-24.
- 박준성, 안혜정, 정태연 (201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의 조절 효과. *스트레스연구*, 21(1), 51-60.
- 안혜정, 이민주, 정태연 (2013). 한국 사회와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보수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529-552.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3), 313-325.
- 손정민, 김현수, 이은희 (2015). 에코붐 세대의 심리 사회적 기능궤적과 예측 요인-사회적 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27-53.
- 유명순 (2016). 사회정신 불건강의 조건과 맥락. 서울대학교 사회 발전연구소 학회 세미나.
- 이상영, 정진욱, 황도경, 손창균, 윤시몬, 채수미, 김효진 (2015). 한국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웅 (2014). 국내외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HRD연구*, 16(2), 225-249.
- 장효진 (2017). 노동시장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의 효과 분석-청년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병제 (1974). A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1), 107-130.
-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 (1973). 내외통제 척도 작성: 연구 노트, 19, 한국행동과학연구소, 263-271.
- 최미래,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 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 소재 및 사회 비교경향성이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효정 (2012). 대학생의 진로 미결정과 내적통제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특성 불안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원무 (2013). 매개효과 분석 방법의 최근 트렌드. *한국비즈니스리뷰*, 6(3), 43-59.
- Abela, J. R. (2002). Depressive mood reactions to failure in the achievement domain: A test of the integration of the hopelessness and self-esteem theories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4), 531-552.
-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267-299). New York:

- Academic Press.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i, B. Y., Liu, X. X., & Kou, Y. (2014). Belief in a just world lowers perceived intention of corruption: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punishment. *PLoS One*, 9(5), e97075.
- Bai, B. Y., Liu, X. X., Shang, S. J., Zhong, N., & Zhang, Q. P. (2016). Body shortness lowers belief in a just world: The mediating role of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1, 366-370.
- Bartholomaeus, J., & Strelan, P. (2016). Just world beliefs and forg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6, 106-11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6), 861-865.
- Begue, L., & Bastounis, M. (2003). Two spheres of belief in justice: Extensive support for the bi dimensional model of belief in a just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71(3), 435-463.
- Block, J. H., Gjerde, P. F., & Block, J. H. (1991). Personality antecedents of depressive tendencies in 18-year-old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5), 726-738.
- Brown, G. W., & Harris, T.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reply. *Psychological Medicine*, 8(4), 577-588.
- Callan, M. J., Kay, A. C., Davidenko, N., & Ellard, J. H. (2009). The effects of justice motivation on memory for self-and other-relevant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614-623.
- Cao, F., & Su, L. (2007).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prevalence and psychological feature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3), 275-281.
- Chou, K. L., & Chi, I. (2001).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ntrol as mediators or moderato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2(2), 155-171.
- Clements, C. M., Sabourin, C. M., & Spiby, L. (2004). Dysphoria and hopelessness following battering: The role of perceived control, coping, and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1), 25-36.
- Conway, N., & Briner, R. B. (2002). A daily diary study of affective responses to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and exceeded promis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3), 287-302.
- Cortina, L. M., & Magley, V. J. (2003). Raising voice, risking retaliation: Events following interpersonal mistreatment in the workplac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8(4), 247-265.



- Correia, I., Batista, M. T., & Lima, M. L. (2009). Does the belief in a just world bring happiness? Causal relationships among belief in a just world, life satisfaction and mood.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1(4), 220-227.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2), 79-98.
-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New York.
- Dalbert, C., & Stoeberl, J. (2006).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and domain-specific beliefs about justice at school and in the family: A longitudinal study with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3), 200-207.
- DuBois, D. L., & Flay, B. R. (2004). The healthy pursuit of self-esteem: Comment on and alternative to the Crocker and Park (2004)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15-420.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 Dzuka, J., & Dalbert, C. (2002). Mental health and personality of Slovak unemployed adolescents: The impact of belief in a just world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732-757.
- Eisenbarth, C. (2012). Does self-esteem moderate the relations among perceived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College Student Journal*, 46(1), 149-157.
- Faccenda, L., & Pantaléon, N. (2011).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ensitivity to injustice, principles of justice and belief in a just world. *Journal of Moral Education*, 40(4), 491-511.
- Feinberg, R. A., Powell, A., & Miller, F. G. (1982). Control and belief in the just world: What's good also can be bad.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0(1), 57-61.
- Fritz, M. S., & MacKinnon, D. P. (2007). Required sample size to detect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Science*, 18(3), 233-239.
-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795-817.
- Gecas, V. (1972). Parental behavior and contextual variations in adolescent self-esteem. *Sociometry*, 35(2), 332-345.
- Hafer, C. L., & Sutton, R. (2016). Belief in a just world. In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pp. 145-160). Springer, New York.
- Hayes, A. F., & Scharkow, M. (2013). The relative trustworthiness of inferential tests of the indirect effect in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Does method really matter?. *Psychological Science*, 24(10), 1918-1927.
- Keeton, C. P., Perry-Jenkins, M., & Sayer, A. G. (2008). Sense of control predicts depressive and anxious symptoms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2),

- 212-221.
- Khera, M. L., Harvey, A. J., & Callan, M. J. (2014). Beliefs in a just world, subjective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s refugees among refugee workers. *Social Justice Research, 27*(4), 432-443.
- Lench, H. C., & Chang, E. S. (2007). Belief in an unjust world: When beliefs in a just world fai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9*(2), 126-135.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In *The Belief in a just World* (pp. 9-30). Springer, Boston, MA.
- Lerner, M. J. (2003). The justice motive: Where social psychologists found it, how they lost it, and why they may not find it aga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4), 388-399.
- Li, J. B.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hardship and future orientation among Hong Kong young people: The mediation role of belief in a just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4), 4957-4971.
- Lipkus, I. M., & Siegler, I. C. (1993). The belief in a just world and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4), 465-474.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 Lebreton, J. M. (2008). Just world beliefs, perceived stress, and health behavior: The impact of a procedurally just world. *Psychology and Health, 23*(7), 849-865.
- Lucas, T. (2009). Justifying outcomes versus processes: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as predictor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Current Psychology, 28*(4), 249-265.
- Lucas, T., Zhdanova, L., & Alexander, S. (2011). Procedural and distributiv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Assessment of a four-factor individual differences model.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2*(1), 14-25.
- Lucas, T., Zhdanova, L., Wendorf, C. A., & Alexander, S. (2013).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Multilevel associ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4), 1325-1341.
- Lynch, T. R., Cheavens, J. S., Morse, J. Q., & Rosenthal, M. Z. (2004). A model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and hopelessness in depressed older adults: The impact of emotion inhibition and affect intensity. *Aging and Mental Health, 8*(6), 486-497.
- McFarlin, D. B., Baumeister, R. F., & Blascovich, J. (1984). On knowing when to quit: Task failure, self esteem, advice, and nonproductive persistence. *Journal of Personality, 52*(2), 138-155.
- Mendonça, R. D., Gouveia-Pereira, M., & Miranda, M. (2016). Belief in a Just World and secondary victimization: The role of adolescent deviant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7*, 82-87.
- Metalsky, G. I., Joiner, T. E., Hardin, T. S., & Abramson, L. Y. (1993). Depressive reactions

- to failure in a naturalistic setting: A test of the hopelessness and self-esteem theories of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101-109.
- Neyer, F. J., & Asendorpf, J. B. (2001). Personality-relationship transaction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190-1204.
- Oarga, C., Stavrova, O., & Fetchenhauer, D. (2015). When and why is helping others good for well being? The role of belief in reciprocity and conformity to society's expect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2), 242-254.
- Orth, U., Robins, R. W., & Roberts, B. W. (2008). Low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3), 695-708.
- Otto, K., Boos, A., Dalbert, C., Schöps, D., & Hoyer, J. (2006). Posttraumatic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of flood victims: The impact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5), 1075-1084.
-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Arndt, J., & Schi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35-46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amos, M. R., Correia, I., & Alves, H. (2014). To believe or not to believe in a just world? The psychological costs of threats to the belief in a just world and the role of attributions. *Self and Identity*, 13(3), 257-273.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ter, J. B. (1975). Some problems and misconcep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 of internal versus external reinforc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1), 56-67.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Sandin, B., Chorot, P., Santed, M. A., Valiente, R. M., & Joiner Jr, T. E. (1998). Negative life events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 critical analysis from the stress process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21(4), 415-426.
- Schaafsma, J. (2013). Through the lens of justice: Just world beliefs mediat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4), 450-458.
- Schindler, S., & Reinhard, M. A. (2015). Catching the liar as a matter of justice: Effects of

- belief in a just world on deception detection accuracy and the moderating role of mortality sali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3, 105-109.
- Seeman, M., & Seeman, T. E. (1983). Health behavior and personal autonomy: A longitudinal study of the sense of control in ill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2), 144-160.
- Sheffer, C., MacKillop, J., McGeary, J., Landes, R., Carter, L., Yi, R., ... & Bickel, W. (2012). Delay discounting, locus of control, and cognitive impulsiveness independently predict tobacco dependence treatment outcomes in a highly dependent, lower socioeconomic group of smokers.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21(3), 221-232.
- Smith, M. J., Alloy, B. L., & Abramson, Y. L. (2006).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ruminat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Multiple pathways to self-injurious think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6(4), 443-454.
- Sutton, R. M., Stoeber, J., & Kamble, S. V. (2017). Belief in a just world for oneself versus others, soci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3, 115-119.
- Testé, B., & Perrin, S. (2013). The impact of endors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on social judgments. *Social Psychology*, 44(3), 201-218.
- Ucar, G. K., Hasta, D., & Malatyali, M. K. (2019).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control and hopelessness in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an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3, 68-73.
- Watson, D., Suls, J., & Haig, J. (2002). Global self-esteem in relation to structural models of personality and affec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185-197.
- White, J. L. (1989). *The troubled adolescent*. NY: Pergamon Press.
- Whisman, M. A., & Kwon, P. (1993). Life stress and dysphoria: The role of self-esteem and hope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1054-1060.
- Wickham, S., & Bentall, R. (2016). Are specific early-life adversities associated with specific symptoms of psychosis?: A patient study considering just world beliefs as a mediato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4(8), 606-613.
- Wild, L. G., Flisher, A. J., & Lombard, C. (2004).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d six domains of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ce*, 27(6), 611-62.

논문 투고일 : 2020. 06. 25

1 차 심사일 : 2020. 07. 01

게재 확정일 : 2020. 10. 05

## **The Effect of Young Generation's Fairness Perception on Hopelessness: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ntrol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Kyue Han An**

**Min Hee Kim**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young generation's Fairness perception on the hopelessness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hopelessness of the future that young generation is experiencing is growing with social interes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erceived control and moderating effect self-esteem between the fairness perception and the hopelessness of the young generation. For this purpose, the self-reporting data of 313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ere colle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airness aware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ceived control and self-esteem, and the hopelessn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irness awareness, perceive control and self-esteem. Second, perceived control mediated between fairness perception and the hopelessness, Third, self-esteem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irness perception and the hopelessness. The high self-esteem group showed little change in hopelessness due to fairness perception while the low self-esteem group showed a big change in hopelessness due to fairness perception, which means that high self-esteem plays a role in alleviating hopelessness when fairness perception is low.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lan ways to improve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Key words : Fairness Perception, Hopelessness, Perceived control, Self-esteem, Youth generation*